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견될 정도로 악화되어 가는 경제 상황에서도 30여 개의 특허와 다수의 인증 기술들을 보유하며 수처리 업계에서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해가고 있는 회사가 있다. 주식회사 성우, 그 힘의 바탕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신뢰이다.

기술과 신뢰를 동력으로 앞서가는 (주)성우

평생을 부지런히 일한 덕에 많은 전담과 과수원을 일군 부자 농부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식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 땀 흘려 일하기를 싫어했고 농부는 그런 자식들의 장래가 걱정되었다. 그리고 임종에 이르렀을 때 자식들을 모아두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귀한 보물들을 저 과수원 안에 있는 어느 나무 밑에 묻어두었으니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나무를 찾아 땅을 파서 나오는 보물로 편히 살도록 하여라.”

그날 이후 자식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과수원의 모든 나무 밑을 열심히 파기 시작했다. 과연 농부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

우리만 가능한 기술을 찾아서

1994년 건설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며 설립된 성우는 상하수도 설비 및 분뇨 처리 시설 등의 설계와 시공,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 폐수처리 시설, 수질 관리 등 모든 환경 분야의 환경영향 평가의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및 공사 시공에 관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문 수처리설비 제작업체이다.

“성우는 정수장 및 하수장 안에 들어가는 침전, 여과 설비 등을 종합 생산하는 업체이면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설계 능력과 시공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국내 몇 안 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말 오산시 가장산업단지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30여 명의



직원들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며 최병성 대표이사는 2009년이야말로 성우의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최근 악화되는 경제 위기로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 속에 수많은 군소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상하수도 분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우는 바로 '기술 개발' 이라고 답한다.

“최근 상하수도 분야는 좁은 시장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신규 건설이 발생하지 않으니 기존 설비를 보완하고 성능이 향상된 새 설비로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주력 생산품인 순간혼화기, 논메탈 슬러지 수집기, 침사 세정기, 분말활성탄 자동주입장치, 원심농축탈수기 등에 사용되는 성우의 기술은 자체 보유 특허만 30여 개가 될 정도로 뛰어나다. 이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성우가 일궈낸 값진 성과이다.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기술 개발에 대한 욕심이 컸던 만큼 오래전부터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뛰어난 연구진을 확보한 성우는 특허뿐만 아니라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에서부터 각종 신기술 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성우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동식 여과장치로 수영장 혹은 군 시설 등과 같은 소형 급수 시

설의 정수 설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우만의 고유한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적은 규모의 설비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처리 능력을 보유하는 것, 그것이 현재 기술 개발의 목표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성우의 뜻집은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주 고객사인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 공사, 건설업체 등에서는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해 설계 초기부터 성우의 기술력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협력업체들과는 전자어음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정도로 탄탄한 신뢰를 쌓았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자고 늘 강조합니다. 만족은 신뢰에서 나오고 그것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신뢰는 역시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성우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 차별화될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눈앞의 이익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을 성우의 모든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자 보물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파놓은 땅에서는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했다. 농부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던 보물은 바로 준비하는 자세였다. 농부의 자식들은 결국 보물을 찾진 못했지만 묵묵히 땀을 흘리며 밭을 가꾸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내어주기 마련임을 깨달았다. 성우 역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며 흘리는 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